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정 해 영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114명의 어머니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Cronbach의 α ,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증,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인 학습활동능력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한계설정 양육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학교준비도

* 본 논문은 2010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 obchung@korea.ac.kr)

I. 서 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 통신 및 교통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확장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고 이른바 국경 없는 시대, 세계화가 날로 가속화됨으로써 문화적·인종적·종교적 구성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주자, 국제결혼이주자 등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지도 다양화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9월 우리나라에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115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09).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는 국제적, 인적 교류확대,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추진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교육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금지윤, 2008; 김기덕, 박민서, 2009; 오성배, 2007; 정윤정, 2007; 조영달, 2006; 홍정미, 2009).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한국사회 내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편견,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다음 세대를 함께 이끌어 갈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언어이해력 및 어휘력 부족에 따른 낮은 학습수행능력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학교부적응 문제이다. 일반 한국인들과는 다른 외모로 인한 편견 및 차별과 함께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정체성 형성과정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언어·인지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영·유아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소홀한 형편이다(경남신문, 2007년 9월 4일). 또한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27.5%)이 한국사회의 평균(56.8%)보다 낮게 나타난 점(설동훈 외, 2005)을 미루어 본다면, 학령전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적절한 교육의 기회 및 초등학교 입학에 위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이중문화라는 특수성 또한 능력으로 인정받아 우리 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인종·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사

회가 되기 위한 교육적인 지원 및 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란, 학교생활을 위한 전반에 걸친 준비로서 초등학교 입학에 위한 기본적인 신체적·인지적·사회정서적 발달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경험하는 학교에서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를 의미한다(박연정, 2007).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2008)는 유아기에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능력이 부모의 경제력 및 다문화 등 가정 배경에 따라 소홀히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형 헤드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년 9월 8일). 이는 유아기에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령전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들에게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으로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활동과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초등학교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이후의 학업성취와 학교과업수행에 있어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Schweinhart, Barnes, Weikart & Epstein, 1993). 또한 학교에서의 생활 및 성취여부는 이후 심리사회적 발달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Bates, Luster, & Vandenbelt, 2000; Sroufe, Cooper & DeHart, 1992)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정현영,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 및 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있어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특성과 환경적 변인을 고려해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아동과 가장 밀접하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접촉하는 대상이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지적·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격이나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곽소현, 2005; 김은이, 2007; 이영숙, 2005; 조영숙, 2008; Rohner, Hann, & Rohner, 1980; Saavedra, 1980).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개인이 속한 시대나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방식이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임정하, 2003),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대부분 출생 이후 다른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는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과정은 일반가정의 아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박미경, 2007; 박미단, 2009). 또한 부모가 자녀 양육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부모와 아동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와 지원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Bronfenbrenner, 198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임신과 출산, 육아문제, 경제적 빈곤, 부부갈등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부족과 교사 및 학부모와의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희, 2007; 서종남, 2010; 장온정, 2010). 이러한 어려움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양육스트레스 요인들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덕, 박민서, 2009).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 및 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아동의 인성과 학업성취 등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 중 하나인 성별은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며,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최형성, 2007; Belsky, 1984).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한숙, 2010),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학교부적응 정도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미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신효선, 2008).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안

은미, 2007)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인 특성인 성별에 따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을 자녀로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연구하기 위해 서울(광진, 구로, 송파, 영등포, 용산) 및 경기도(시흥, 안산, 양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4$)

변 인		대상자 수(%)
성 별	남	55(48.2)
	여	59(51.8)
부모의 연령		부 모
	만 25세 이하	0 1(0.9)
	만 26~30세	3(2.6) 7(6.1)
	만 31~35세	5(4.4) 20(17.5)
	만 36~40세	31(27.2) 49(43.0)
	만 41~45세	44(38.6) 29(25.4)
	만 46~50세	24(21.1) 7(6.1)
부모의 학력	50세 이상	7(6.1) 1(0.9)
		부 모
	국졸	3(2.6) 0
	중졸	13(11.4) 4(3.5)
	고졸	55(48.2) 41(36.0)
	전문대 또는 대학중퇴	15(13.2) 34(29.8)
	대학 졸	25(21.9) 34(29.8)
아버지 취업	대학원 이상	3(2.6) 1(0.9)
		취업 비취업
어머니 취업	취업	101(88.6)
	비취업	13(11.4)
	전일제 취업	16(14.0)
가정 월수입	시간제 취업	25(21.9)
	전업주부	73(64.0)
	100만원 미만	9(7.9)
가정 월수입	100~149만원	20(17.5)
	150~199만원	37(32.5)
	200~249만원	20(17.5)
	250~299만원	12(10.5)
	300~349만원	12(10.5)
	350~399만원	2(1.8)
	400만원 이상	2(1.8)

주, 인천, 인천, 하남)의 보육시설, 유치원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음 해 취학 예정인 만 5세 다문화가정 아동 114명(남아 55명, 여아 59명)의 어머니와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신숙재가 서혜영(1992)이 번안한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기초로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부정문의 일부를 긍정문으로 수정하여 제작한 것이다.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선정된 문항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9문항),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3문항)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함을 나타낸다.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각 요인별 Cronbach의 α 는 .74~.81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 는 .85이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Cronbach의 α 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66,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4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계옥(1994)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홍계옥(1994)이 아이오와 부모양육행동척도(IPBI: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other Form)를 번안하여 제작한 것이다. 선정된 문항은 합리적 지도(8문항), 한계설정(5문항), 애정성(8문항), 반응성(5문항)에 대한 총 26문항이다. 다음 26문항은 주성분 분석방법과 사각회전방법을 사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4.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계옥, 1994). 총 26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체문항에 대한 Cronbach의 α 는 .84이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의 α 는 합리적 지도 .79, 한계설정 .50, 애정성 .65, 반응성 .74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연정(2007)의 학교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아동의 발달 및 생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는 학습능

력, 아동의 신체발달에 근거한 운동능력, 사회정서적 적응, 기본생활 습관을 포함한 척도로 델파이 방법을 통해 내용타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잠재적인 공통요인을 파악하고 척도 구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의 주축요인추출방법에 의한 사각회전(Oblimin)방식을 사용하였고 선정된 4요인은 단체생활태도(6문항), 정서교류능력(13문항), 일상생활지식(9문항), 학습활동능력(8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의 α 는 .95, 검사-재검사신뢰도는 .72, 반분신뢰도는 .96이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의 α 는 단체생활태도 .83, 정서교류능력 .91, 일상생활지식 .89, 학습활동능력 .8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조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한국어 질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질문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을 녹음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질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본조사에 반영하였다. 본조사는 2009

년 6월 2일에서 8월 30까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복지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보육시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다음해 취학 예정인 다문화가정 만 5세 아동의 어머니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센터에 방문해서 설문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 중 몇몇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한국어 실력이 다소 낮아 질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일환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원사업의 한국어지도 선생님 또는 양육지원 선생님과 지원센터에서 봉사하거나 근무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중 한국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도움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본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지를 응답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시간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배부된 질문지 130부 중에서 회수되지 못한 교사용 질문지와 불성실하게 작성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14부의 질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α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

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일반적 경향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평균 및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의 수가 다르므로 하위요인별 점수의 총합을 문항 수로 나누어 하위요인별로 비교하였다. 전체평균 및 각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평균은 2.45($SD=.46$)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M=2.55$, $SD=.66$),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M=2.54$, $SD=.64$),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M=2.34$, $SD=.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전체평균은 3.70($SD=.39$)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반응성($M=3.98$, $SD=.59$), 합리적 지도($M=3.92$, $SD=.46$), 한계설정($M=3.61$, $SD=.53$), 애정성($M=3.36$, $SD=.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전체평균은 3.17($SD=.40$)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교류능력($M=3.40$, $SD=.42$), 단체생활태

도($M=3.15$, $SD=.51$), 일상생활지식($M=3.10$, $SD=.46$), 학습활동능력($M=3.02$, $SD=.58$)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표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남($n=55$)		여($n=59$)		df	t
	M	SD	M	SD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2.51	.58	2.56	.69	112	-.37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36	.51	2.31	.50	112	.42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2.61	.74	2.53	.60	112	.62
총점	2.46	.47	2.45	.45	112	-.11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n=55$)		여($n=59$)		df	t
	M	SD	M	SD		
합리적 지도	3.93	.47	3.91	.46	112	.26
한계설정	3.72	.52	3.52	.52	112	1.98
애정성	3.42	.57	3.32	.45	112	.95
반응성	4.03	.58	3.94	.60	112	.78
총점	3.75	.43	3.66	.35	112	.95
학교준비도	남($n=55$)		여($n=59$)		df	t
	M	SD	M	SD		
단체생활태도	3.08	.51	3.21	.50	112	-1.33
일상생활지식	3.40	.44	3.41	.40	112	-.18
정서교류능력	3.11	.50	3.09	.43	112	.21
학습활동능력	2.90	.64	3.14	.50	112	-2.16*
총점	3.13	.44	3.20	.37	112	-1.11

* $p<.05$.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가운데 학습활동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집단이 남아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22,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총점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27,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인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 애정성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학교준비도				
		단체생활 태도	일상생활 지식	정서교류 능력	학습활동 능력	총점
양육 스트레스	기질관련 스트레스	-.04	-.09	-.19	-.17	-.17
	자녀관계 스트레스	-.08	-.06	-.13	-.16	-.14
	학습기대 스트레스	-.21*	-.17	-.20*	-.30**	-.27*
	총점	-.11	-.12	-.21*	-.24*	-.22*
양육행동	합리적	.12	.18	.10	.22*	.19
	한계설정	.21*	.26**	.25*	.29**	.31**
	애정성	.10	.19	.22*	.11	.20*
	반응성	.06	.12	.17	.10	.15
	총점	.12	.25*	.24*	.23*	.27**

* $p<.05$, ** $p<.0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과 하위요인에 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아동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동과의 신체적인 애정표현 및 친밀성을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정해두고 다소 엄격하게 아동의 생활에 관여할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점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우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검증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자료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 값이 1에 근접하고 분산팽창계수 값이 10 이하였으므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인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9%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각각의 하위요인이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준비도 중 단체생활태도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로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지식과 정서교류능력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각각 5.6%, 5.4%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학교준비도 중 학습활동능력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표 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β	<i>F</i>	R^2
아동의 학교준비도	한계설정 양육행동	.23	.31**	11.78**	.10
		(상수)	2.24		$R^2_{adj.} = 9.0\%$

** $p < .01$.

표 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하위요인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β	<i>F</i>	R^2
단체생활 태도	학습기대 스트레스	-.16	-.21*	4.73*	.04
		(상수)	3.56		$R^2_{adj.} = 3.5\%$
일상생활 지식	한계설정 양육행동	.20	.26**	7.17**	.07
		(상수)	2.67		$R^2_{adj.} = 5.6\%$
정서교류 능력	한계설정 양육행동	.22	.25*	6.83*	.06
		(상수)	2.31		$R^2_{adj.} = 5.4\%$
학습활동 능력	학습기대 스트레스	-.20	-.23*	9.78*	.09
	한계설정 양육행동	.24	.22*	7.50*	.13
		(상수)	.68		$R^2_{adj.} = 11.2\%$

* $p < .05$, ** $p < .01$.

11.2%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인 학습활동능력에서는 여아의 학습활동능력이 남아의 학습활동능력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아동의 성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고윤희, 2001; 김혜성, 2001; 안지영, 2001; 이지원, 2003)과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한경선(2008)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인다. 한경선(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그 하위요인인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에 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의 자녀요인인 성별,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활동력이 높기 때문에 남아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주장한 연구결과(강희경, 1998; 신숙재, 1997)와 여아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편은숙, 2004)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연령 및 개인 특성, 어머니의 연령, 한국

생활기간, 결혼생활기간, 한국어 실력, 가정소득, 학력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고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09; 김춘화, 2009; 정선영, 2007; 한경선, 2008).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성별보다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나 결혼만족도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서홍란, 김기연, 김양호,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남숙(2009)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력, 국적, 한국거주기간, 결혼기간, 한국어 실력, 소득에 따라 양육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57,192명, 베트남 29,816명,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09).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요소인 한자, 유교, 불교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문화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라는 사회·정치적 구조 안에서의 교육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어머니와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성역할 및 의식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여아보다 남아에 대한 기대

또는 인식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어머니의 출신국의 전통에 기초한 관습과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학교준비도 각 하위요인별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중 학습활동능력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집단이 남아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연정(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준비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여아집단이 남아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준비도 하위요인 중 학습활동능력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신효선, 2008; 정윤정, 2007)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집단이 남아집단보다 위축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공격행동은 남아집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의 개인 특성인 성별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 배경 및 한국어 수준과 정보 및 교육수준, 경제적지지 등 아동의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생활에 제한을 정해두고 그 제한영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높다는 관련성을 말한다.

현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김미숙, 2009; 김지연, 2010; 김춘화, 2009; 김희수, 2010; 이경아, 2010; 이진희, 2009; 장지연, 2009; 정선영, 2007; 하태화, 2009; 한경선, 2008)은 주로 결혼만족도나 문화적응, 양육효능감, 사회적지지, 교육프로그램 효과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박은혜, 2010; 신정희, 2010; 이경아, 2010; 조한숙, 2010; 최형성, 2009a, 2009b)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준비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신정희, 2010; 신효선, 2008; 이지애, 2008; 정윤정, 2007; 정현영, 2007; 한정애, 2009; 현경순, 2008; 홍정미, 2008)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아동의 학습활동능력인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은 기본언어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모양을 그리고 오리는 능력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단체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 및 태도,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기간 지속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타국인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생활양식에 적응하기 전에 자녀를 출산·양육할 뿐만 아니라 양육에 관한 교육 및 정보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일반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보다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자녀양육, 생활만족도, 어머니의 건강 상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생활 기간이 짧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점(김춘화, 2009; 신효선, 2008)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준비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과 부적응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 양육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학령전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또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아동의 생활에 제한을 정해두고 다소 엄격하게 아동의 생활에 관여할수록 아동의 학습활동능력인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은 기본언어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모양을 그리고 오리는 능력이 높아지고, 단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 및 태도,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또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아동의 학교준비도가 높아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sky(1984)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합리적 지도, 일관성 있는 훈육, 애정적 태도 등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여주고,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나 지적 발달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며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최정미, 2002; 한민경, 2002)이 보고되었으나, 아동의 행동에 한계를 설정해 주는 양육행동,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동 등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많은 한계를 정해줄수록 아동이 공격적 행동, 비협조성, 불안정성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이경희, 최경순, 1992)와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한계설정이 아동의 사회적 활동성, 책임감, 독립심, 주도성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손승희, 2002; Baumrind, 1973; Putallaz & Heflin, 1990)을 통하여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관해 서로 상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신정희, 2010; 신효선, 2008; 현경순, 2008; 홍정미, 2009)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희(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덜 거부적이고 제재적일수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은 높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나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담임교사와 친구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하였으며 적극적인 학습활동과 학교규칙준수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형성(2009a)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두고 제한영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소 엄격하게 제시하거나 실행하게 하는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인 과잉, 위축, 불안, 공격, 미성숙 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처한 상황과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논

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총점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학교준비도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단체생활태도에는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 지식과 정서교류능력에는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습활동능력에는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연정(2007)의 학교준비도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성별,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적극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성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낮은 설명력이지만,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나타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몇몇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최형성(2009a)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과 같은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의 어머니들보다 아동에게 더 통제적이고 동시에 과잉보호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과잉보호적인 양육행동을 어머니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의 지시를 무시하거나(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 2006)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에게 통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신의 기대와 주도성을 전달하고자(전유경, 2010) 제한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학습활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나타났다. 전만길(2005)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과 한국 어머니들이 갖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생소한 한국의 교육제도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육의 열기에 맞춰 아동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일반가정 어머니들이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 영재교육이나 조기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는 다른 생활 및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이경아, 2010). 이에 따라 학습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아 질 수 있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지각한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Abidin, 1990; 이경아, 2010; 조영숙, 2008; 최형성, 2009a, 2009b)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도희, 박영준, 이정은, 2007; 신정희, 2010)을 통해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표집되었으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측정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신뢰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요인 중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신뢰도가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대상이 외국출신 어머니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게 산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 특성인 성별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관한 차이만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월령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 및 다른 생태학적인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특성 및 환경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가정환경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만 5세 아동과 이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를 관련 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일반아동의 학교준비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두 집단의 차이에 관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또는 교사의 인식 및 지지 등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돕기 위해 가정에서 어떠한 노력과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희경 (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고윤희 (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곽소현 (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서울: 교육인적 자원부.
- 금지운 (2008). 유아교육기관의 다문화가정 유아 지도 현황 및 교사의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기덕, 박민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8(1), 97-121.
- 김남숙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도희, 박영준, 이경은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양육행동에 관한 인과모형 탐색. 농촌사회, 17(2), 1-31.
- 김미숙 (2009).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비교연구: 내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은이 (2007).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2010). 국제결혼가정의 양육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춘화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희 (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시대의 논리) 민족연구, 31, 6-49.
- 김혜성 (200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사회정서적 투자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수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다문화 가정 취학전 교육지원 시급하다. (2007. 9. 4) 경남신문, p. 23.
-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미단 (2009).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발달 특성비교. 나사렛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연정 (2007).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 개발 및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종남 (2010).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103-126.
- 서혜영 (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손승희 (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정희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효선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학회지, 12, 1-15. 부천: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이경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희, 최경순 (1992). 아동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83-97.
- 이영숙 (2005). 유아의 적응행동 및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성별, 기질, 취원기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지애 (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지원 (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 7(2), 207-216.
- 이진희 (2009). 이주여성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이 모성역할자신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신생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정하 (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장은정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정응을 위한 예비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 23(3), 79-99.
- 장지연 (2009). 결혼이민자여성의 결혼만족과 양육스트레스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만길 (2005). 外國人 主婦 韓國生活 實態 調査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유경 (2010).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모-자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선영 (2007). 결혼이민 어머니의 개인 특성, 부부 적응 및 유아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윤정 (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현영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조한숙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 어머니 양육행동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선화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정미 (2002).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4), 125-138.
- 최형성 (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8(3), 77-100.
- _____ (2009a).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30(3), 197-211.
- _____ (2009b).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30(5), 245-262.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09).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하태화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아동양육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경선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형 “헤드스타트” 첫 실시. (2008. 9. 8)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한민경 (200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정애 (2009).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과정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현경순 (2008). 국제결혼 부부의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계옥 (1994).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홍정미 (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 407-412.
- Bates, L., Luster, T., & Vandenberg, M. (2000). Factors related to successful outcomes among preschool children born to low-income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133-147.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D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 Psychology*, 22, 73-742.
- Pur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ner, R. P., Hann, B. C., & Rohner, E. C. (1980).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among Korean American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55-66.
- Saavedra, J. M. (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f on the self 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chweinhardt, L., Barnes, H., Weikart, D., & Epstein, A. (1993). Significant benefi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27. *Monographs of the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10. MI: The High/Scope Press.
- Sroufe, L.A., Cooper, R. G., & DeHart, G. B. (1992). *Child development: Its nature and course*. New York: McGraw-Hill.

1차 원고접수 : 2011. 1. 18

수정원고접수 : 2011. 2. 25

최종게재결정 : 2011. 5. 25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n the School Readiness Levels of Preschool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Hae Young Jung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levels of school readiness in preschool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14 mothers and teachers in Seoul and Kyeonggi-do.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s α ,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erms of levels of school readiness, but maternal parenting stress or parenting behavior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different through child gender. Children's school readiness levels were related to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in terms of the setting of limits and intimac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levels of school readiness. However, maternal parenting stress in regards to learning expectation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school readiness. Among the various influence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as they impact upon levels of children's school readiness, maternal limit-setting behavior was able to account for 9% of the variance in children's levels of school readines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Maternal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School Readiness.